

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안해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정운영 차질 안돼" 불출마 의사 밝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11일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는 박재호 국회의원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

인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향후 수십년의 운명을 좌우할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해수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많은 시민과 당원께서 촉불혁명을 부산에서도 완성하라는 명령으로 저의 출전을 요구해 애초의 불출마 입장을 꺾고 시장후보 경선참여를 적극 검토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현직 장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살리기와 북핵위기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작은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의 요청에 따르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 기대는 다른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정일 기자 yunji@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이상 유치 일자리 1만개 창출'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목표로 '4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실적 기록(신고기준 229억4000만 달러), 3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달성 등 외국인투자 유치 상승 기조를 이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을 위해, 고부가·신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고용창출·혁신성장을 위한 유치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

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기반 구축을 위해선 제도개편을 통한 고용·신산업 등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경제특구 개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허브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유치하고,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선 외투자 기업 채용규모에 따른 맞춤형 매칭 지원과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일자리 종합추진계획 수립

예탁결제원, 70개 세부과제 선정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하고 'KSD일자리 종합추진계획(Master Plan)'을 수립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좋은 사람들,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일자리 슬로건을 확정하고, 정부의 일자리 추진 5대 방향에 맞춰 총 70개 세부과제를 선정,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예탁결제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제도 활용 확대, 4차 산업 기술(핀테크) 발전 선도, 전자투표 시스템 상용화 등 기존 비즈니스의 확장 및 고도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윤정일 기자

삼성전기, 인텔 우수품질공급업체로 선정

인텔 SCQ 어워드서 기업체로는 유일 수상 영광

삼성전기가 11일 '2017 인텔 SCQ 어워드'에서 우수품질공급업체상(FQS)을 수상했다. 삼성전기는 우수한 품질의 FCBGA

(Flipchip Ball Grid Array) 반도체용 패키지 기관을 인텔에 공급한 공로로 기업체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07년, 2012년에 이은 3년

째 수상이다. 삼성전기는 지난 2000년 컴퓨터 칩셋용 BGA를 시작으로 인텔에 반도체 용 기관을 공급하고 있다. 인텔은 전 세계 공급업체 중 품질, 기술력, 고객서비스, 환경, 지속가능성 등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윤정일 기자

산업부 "美 철강관세 부과 유감...WTO 제소 적극 검토"

백운규 장관,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위해 미국과 협의 추진"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관세 경감·면제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번 조치는 15일 이후인 23일부터 시행된다. 백 장관은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KIAT, 중기 수출 막는 기술규제 장벽 해소 지원

1년간 5억 지원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기술개발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학도, 이하 KIAT)은 최근 기술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기술규제를 뛰어넘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1년 동안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기술개발(R&D) 사업을 공고한다. 글로벌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기술개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입국의 기술규제나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그중 사업계획의 적합성, 수출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상·하반기 2회 공고하며, 올 상반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은 4월 9일까지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계획을 돕기 위해 KIAT가 사전에 조사·발굴한 기술규제 대응 유망기술 26건과 FTA 관세 수혜 유망 품목 15건의 목록도 함께 제공된다. 또 연구개발자금에서 인건비가 차

지하는 비중을 40%(현금+현물) 이상으로 높여 기술개발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학도 KIAT 원장은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할수록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신기술로 험난한 통상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면서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규제를 뛰어넘는 고품질 신제품 개발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기술개발사업 신청서는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형석 기자

매력적인 가격! 턱니한 인값구매!

3시 / 일반 전선 다량보유

(주) 세양케이블판매

전선 · 전기 · 소방 · 통신 · LED 조명 · 특고자재에 이르기까지 전력기자재 종합 할인마트 (주)세양케이블판매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 제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의 수주경쟁력을 한층 높여 드리겠습니다.

전선

전기

소방

통신

LED 조명

특고자재

SEYANG (주)세양케이블판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포동 17번지(서강동) 특고자재 전문 업체

TEL : (051)323-0061(대)

FAX : (051)323-2982

URL : www.sycable.kr

판매 품목

- 전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동·구리선 (2.5, 4, 6, 10, 16, 25, 35, 50, 70, 95, 120)
- 통신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소방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통신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소방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통신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소방사재

- 소방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소방선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트레이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
- 케이블 트레이 (가벼운 비닐, 정자, 대, 4차선, 4.5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